

조선(선박)해양공학과 수석졸업생 동향 분석

김 용 섭 <대한조선학회 편집이사>

1. 서 언

대한조선학회에서는 충무기술상, 기술상, 학술상, 논문상, 우암상 그리고 각 대학의 조선(선박)해양공학과 및 관련학과 수석졸업생들에게 수여하는 수석졸업생상 등의 제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수상자 수가 가장 많은 수석졸업생 수상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뿐만 아니라, 다소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그 시대 혹은 그 대학 졸업생들의 진로를 짐작하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자료수집은 각 대학 해당 학과의 협조를 받아 이루어 졌는데, 시간이 넉넉하지 못하여 미확인 된 경우가 있었다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먼저 수상자를 대학에 관계없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로 나누어 직업별로 구분한 후 각 대학별 직업 분포를 살펴보는 순서로 정리하였다.

2. 동향 분석 및 고찰

1967년에 처음으로 수석졸업생 수상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 때는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만 졸업생들이 배출되던 시대였으므로

범 례	① 조선소	② 대학	③ 연구소
	④ 선급	⑤ 일반회사	⑥ 대학원
	⑦ 유학	⑧ 기타	⑨ 미확인

표 1. 1960년대 수석졸업생 명단

연	교	부산대	서울대	인하대
1967		엄수의 ⑤	박창순 ⑤	김윤국 ①
1968		강성원 ②	황정열 ①	이용웅 ①
1969		문태일 ④	양승일 ③	유수훈 ⑧

로, 표 1에 이 3개 대학의 수석졸업생 명단을 아래 범례를 사용하여 나타내었다(이하 동일 범례 적용).

그림 1은 이들 수석졸업생들의 동향을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살펴보면 조선소로 진출한 경우가 3명으로 가장 많은 33%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거나 선급의 검사원, 연구소 연구원, 기타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당시가 비록 우리나라에서 아직 조선산업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선소를 비롯한 선박검사원, 선박관련연구소의 연구원, 조선공학과 교수로서 재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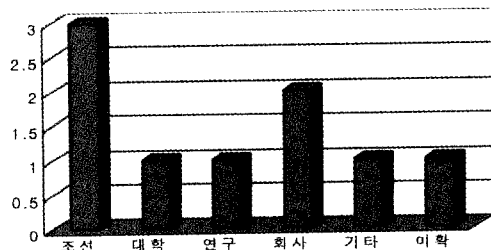


그림 1. 1960년대 각 대학 수석졸업생 동향

기획 | 조선(선박)해양공학과 수석졸업생 동향 분석

표 2. 1970년대 수석졸업생 명단

연\교	부산대	서울대	울산대	인하대
1970	방철용 ④	최항순 ②	-	구종도 ②
1971	전용성 ①	김홍렬 ③	-	김용희 ⑨
1972	황무수 ①	임문규 ①	-	정용섭 ①
1973	허성철 ⑧	김석규 ⑤	-	나수현 ④
1974	윤종완 ①	정인기 ①	-	김중욱 ⑨
1975	박맹준 ④	정태영 ③	-	김정기 ①
1976	유승열 ①	김시현 ⑤	-	전정수 ⑤
1977	김용철 ⑧	배영수 ①	배영일 ①	이영길 ②
1978	이상갑 ②	이종식 ①	윤태섭 ⑨	정원용 ②
1979	최복직 ①	양박달치 ②	박창규 ⑨	박재웅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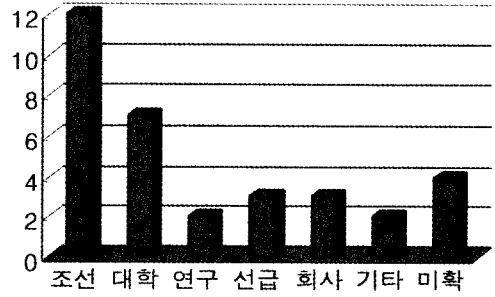


그림 2. 1970년대 각 대학 수석졸업생 동향

하는 경우를 모두 조선관련 분야로 볼 때 확인된 경우의 86%가 조선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전공 분야 관련 종사자 비율이 매우 높다.

표 2는 1970년대 각 대학의 조선(선박)해양공학과 수석졸업생 명단 및 취업 동향을 나타낸 것인

데, 울산대학교가 1977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함으로써 전국에서 조선(선박)해양공학과가 있는 대학이 종전의 3개 대학에서 1개교가 더 늘어나 4개 대학교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1970년대 각 대학 조선(선박)해양공학과 수석졸업생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면 조선소에 근무하는 경우가 12명으로 전체 수상자 33명중에 36%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경우로 전체의 21%나 되었다. 그 외에 선박검사원이 되거나 설계회사에 근무하는 경우(그림에서는 회사로 표기)

표 3. 1980년대 각 대학교 수석졸업생 명단

연도	학교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울산대	인하대	조선대	충남대	한국해대
1980		-	이수룡 ②	최성규 ⑧	서설철 ⑦	구광희 ①	-	-	-
1981		-	장수홍 ⑨	손귀현 ⑧	이동배 ①	임병섭 ①	-	-	-
1982		-	이승건 ②	홍석윤 ②	박상철 ①	이희준 ①	-	-	-
1983		-	엄재광 ①	김선영 ③	추정근 ⑨	정석태 ⑨	-	-	-
1984		-	정호현 ①	김상주 ②	강성곤 ③	이상규 ③	-	-	-
1985		-	박춘길 ①	남중호 ⑤	김정로 ⑨	박동기 ①	-	-	-
1986		-	김승학 ①	김성은 ⑤	양원석 ⑨	김영훈 ⑨	-	윤도수 ⑨	이상철 ①
1987		-	이영섭 ④	한성곤 ①	신동원 ①	안병훈 ①	-	황수권 ③	최상현 ①
1988		안동석 ⑧	박성우 ①	정태석 ⑦	권오창 ⑨	신용수 ③	-	이택규 ⑨	이인규 ⑨
1989		문우식 ①	이영섭 ②	지원식 ⑦	이종문 ③	이흥구 ⑨	유호준 ⑤	강동균 ⑨	이경우 ②

표 4. 1990년대 각 대학 수석졸업생 명단

연	교	목포대	목포해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울산대	인하대	조선대	충남대	한국해대	홍익대
1990	-	-	-	이영우 ⁷	조영범 ⁴	김현규 ⁹	구태훈 ⁹	이순홍 ⁷	김윤영 ³	강재협 ⁸	김석주 ⁵	-
1991	-	-	-	정병영 ⁷	장택수 ⁷	이재용 ⁵	최완식 ¹	민곤식 ⁹	안철환 ¹	손낙중 ⁹	손태봉 ¹	-
1992	-	-	-	홍영웅 ¹	이정호 ⁷	박현식 ⁵	김상일 ¹	박재웅 ⁵	박정웅 ³	박봉운 ¹	이장용 ¹	-
1993	-	-	-	한상영 ¹	이진호 ¹	김현조 ³	김동연 ⁹	김정식 ⁵	김종명 ²	정성원 ¹	오창근 ³	이준희 ¹
1994	-	-	-	김병주 ¹	소수현 ⁷	황윤식 ¹	심근보 ⁹	이장우 ⁹	방희진 ⁶	안병권 ⁷	윤여일 ⁵	김영준 ¹
1995	-	-	-	김영태 ⁶	양수홍 ⁴	백형수 ⁷	박영주 ¹	김종구 ⁸	김원진 ¹	곽창호 ⁸	최필성 ¹	김문성 ¹
1996	-	-	-	김철현 ⁶	양진호 ¹	주성문 ²	김형덕 ¹	변정우 ¹	김원중 ⁶	도관수 ⁴	이성욱 ⁵	이광호 ⁸
1997	-	-	-	김원식 ¹	신성철 ²	고석천 ¹	전상후 ¹	음학진 ⁹	정호진 ¹	김기정 ¹	오창석 ¹	김창범 ⁶
1998	-	-	-	임성환 ¹	백광준 ¹	조병삼 ⁴	고대규 ¹	강용구 ¹	오경근 ¹	이인혜 ¹	김태균 ¹	류희룡 ⁵
1999	조윤희 ⁶	정미경 ⁶	문중수 ⁶	이종현 ¹	김성용 ⁶	정기성 ¹	정은경 ⁹	김상진 ⁵	김준규 ⁶	박세일 ¹	정현실 ⁶	-
2000	김비현 ³	김 명 ⁸	김성인 ¹	전민정 ⁶	김태현 ⁶	윤훈희 ¹	김종구 ⁶	박영철 ⁶	맹은주 ⁵	정호진 ⁸	오웅백 ⁶	-

가 각각 3명이었고, 선박관련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2명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 기타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2명, 미확인된 경우가 울산대와 인하대에서 각각 2명이 있어서 4명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조선산업에 대한 붐이 조성된 시점으로서, 미확인된 4명을 제외하고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93%가 조선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 역시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은 1980년대 각 대학 조선(선박)해양공학과 수석졸업생 명단을 나타낸 것으로, 부경대학이 1988년에, 조선대학이 1989년에 그리고 충남대학과 한국해양대학이 1986년에 각각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은 1980년대 각 대학의 수석졸업생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면 조선소 취업이 17명, 연구원과 대학교수가 각각 5명, 선박검사원이 1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수상자 51명 중에서 미확인된 10명을 제외하고 68%가 조선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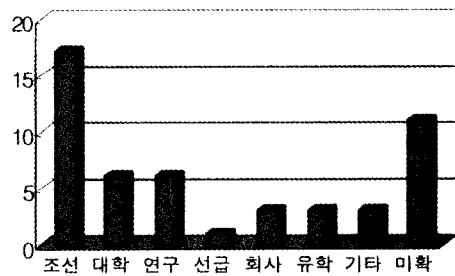


그림 3. 1980년대 각 대학 수석졸업생동향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60년대와 70년대와 비교하여 그 비율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일반회사에 취업하거나 공무원이 되었거나 유학을 간 경우도 몇 명 확인되었다.

표 4는 1990년대와 2000년 각 대학 조선(선박)해양공학과 수석졸업생 명단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면 홍익대학교가 1993년, 목포대학과 목포해양대학이 1999년에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한라대학은 아직 졸업생이 없으므로 본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한라대학이 2001년에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면 전국에서 조선

기획 | 조선(선박)해양공학과 수석졸업생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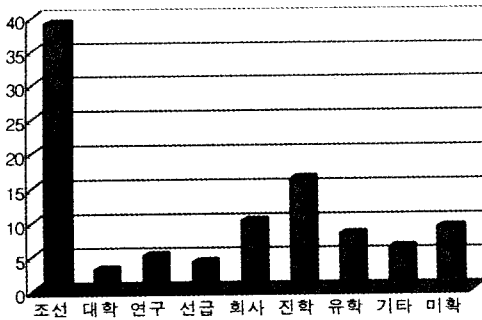


그림 4. 1990년대 각 대학 수석졸업생동향

(선박)해양공학과가 있는 대학은 12개교로 늘어 나게 된다.

그림 4는 1990년대와 2000년도 수석졸업생 동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살펴보면 조선소에 취업한 경우가 39명, 대학교수가 3명, 연구원이 5명, 선박검사원이 4명으로서 수상자 100명중에서 미확인된 9명을 제외하면 56%가 조선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비율은 80년대의 조선산업관련분야 종사자 비율 68%보다도

12%나 감소한 것으로서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90년대에 들어와서 조선소의 취업문이 좁아졌고 또 취업에 선호도가 다양해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 외에 대학원에 진학했거나 유학을 간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은 시기적으로 90년대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동향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중인 경우가 60, 70, 80년대와는 달리 거의 없는 것은 아직 연륜이 교단에 서기엔 이른 것이 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표 5는 각 수상자 동향을 각 대학별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살펴보면 조선소에 가장 많이 진출한 대학은 부산대학교로서 14명이고,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가 12명, 인하대학교가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수상자가 가장 많은 대학은 서울대학교로서 5명이고, 그 다음이 부산대학교와 인하대학교로서 각각 4명씩임을 알 수 있다. 연구소 연구원으로 가장 많이 진출한 대학은 서울대학교로서 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하대학교가 4

표 5. 각 대학별 수석 졸업생 동향

직	교	목포대	목포해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대	울산대	인하대	조선대	충남대	한국해대	홍익대	계
조선소	-	-	7	14	8	12	11	4	4	7	3	70	
대학	-	-	-	4	5	-	4	1	-	1	-	15	
연구소	1	-	-	2	5	2	4	3	1	1	-	19	
선급	-	-	-	5	1	-	1	-	1	-	-	8	
일반회사	-	-	1	-	7	-	2	1	1	4	1	17	
유학	-	-	1	3	3	1	-	-	1	-	-	9	
공무원	-	-	1	-	-	-	-	-	-	-	-	1	
대학원	1	1	3	2	2	3	1	1	1	-	3	18	
설계회사	-	-	-	2	-	-	-	-	-	1	-	3	
기타	-	1	-	1	2	-	1	1	-	1	1	8	
미확인	-	-	-	1	1	6	10	-	6	-	-	24	
계	2	2	13	34	34	24	34	11	11	15	8	192	

명, 조선대학이 3명, 부산대학과 울산대학이 각 2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선박검사원은 부산대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대 인하대 충남대가 각 1명으로 나타났다.

목포대학과 목포해양대학은 99년과 2000년에 졸업생이 배출되어 아직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하는 등 아직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부경대학은 13명 수상자 중 7명이 조선소에 진출하므로써 이 분야로의 진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대학교, 한국해양대학, 홍익대학등도 대체로 조선소로 진출하는 수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결 언

지금까지 1967년부터 2000까지 전국 각 대학의

조선(선박)해양공학과 수석졸업생들의 취업동향을 연도별·대학별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1. 조선산업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한 경우에 대하여 비율이 높은 순서를 연대에 따라 정리하면 60, 70, 80, 90년대로서 나타났다.
2. 대학에 구분 없이 가장 많은 수상자가 진출한 분야는 조선소로 조사되었다.
3. 부산대, 서울대, 인하대 등 앞서 설립된 대학 출신 수상자들이 대학과 연구소로 진출한 경우가 나머지 대학에 비하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타대학은 조선소로의 진출이 많았다.

<그 동안 자료수집에 많은 도움을 주신 학회 및 각대학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 용 섭

- 1948년 5월 12일생
- 1985년 홍익대학교 공학박사
- 현재 홍익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열유체 공학
- 전 화 : 041-860-2546
- E-mail: yoskim@wow.hongik.ac.kr